

2016

사순 시기 묵상집

도미 의서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지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악의 길에 머무르면 결국 환멸과 비탄에 잠기게 될 뿐입니다.
참된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이 희년의 사순 시기는
하느님 자비를 기념하고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기로
우리는 이 시기를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없이 여기시고
당신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모르는 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버리시리라.’(미카 7,18-19 참조)

-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 『자비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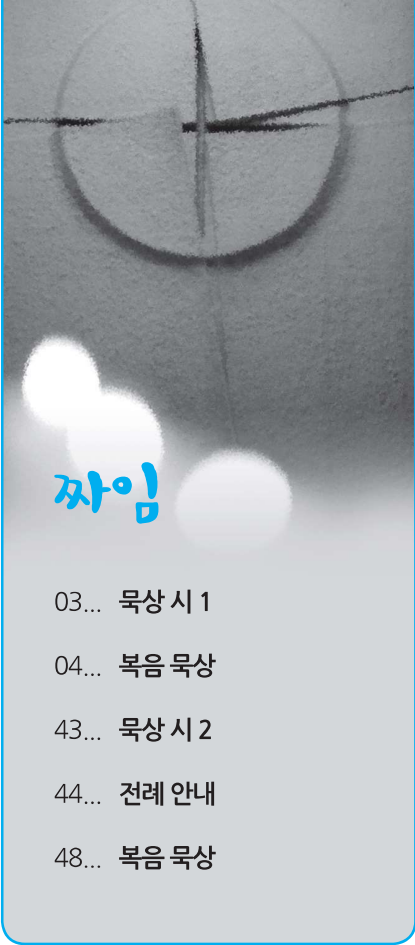
2016

사순 시기 묵상집

동행



교황청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짜임

03... 묵상 시 1

04... 복음 묵상

43... 묵상 시 2

44... 전례 안내

48... 복음 묵상

표지 이미지

출처 : contents.pauline.or.kr 작가 : 김인숙 수녀 CCL : CCBY-NC-ND

사순 시기 묵상집은

후원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엮었습니다.

이 묵상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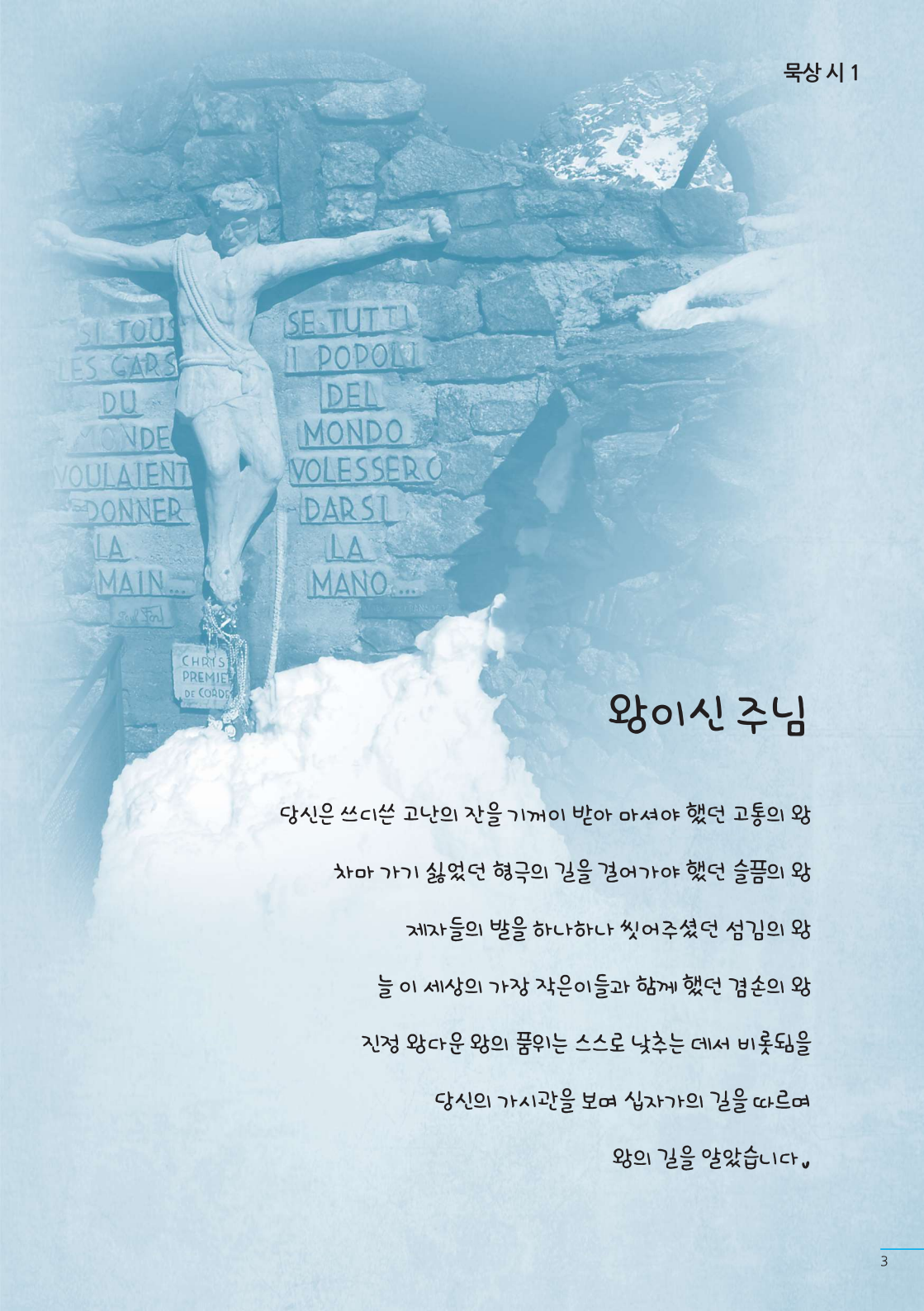
여러분 곁에 있고 매일 읽혀져,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는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길라잡이는 김병수 신부님(한국외방선교회)께서 집필해주셨습니다.



왕이신 주님

당신은 쓰디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셔야 했던 고통의 왕
차마 가기 싫었던 형극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슬픔의 왕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던 섬김의 왕
늘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 했던 겸손의 왕
진정 왕다운 왕의 품위는 스스로 낮추는 데서 비릇됨을
당신의 가시관을 보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왕의 길을 알았습니다.

재의 수요일



이마에 재를 얹으며 사순절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재는 흙을 상징합니다. 겸손하게 인생의 시작과 끝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흙은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겸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어로 ‘human(사람)’이나 ‘humility(겸손)’는 라틴어 ‘humus(흙, 먼지)’에서 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dam(인간)’이라는 말 역시 ‘adamah(흙)’에서 나왔습니다. 곧, 인간의 본성은 흙과 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흙은 가장 낮은 대상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흙이고, 흙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겸손을 발견합니다. 안토니 블룸 역시 ‘겸손은 땅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흙 묻은 신발 끈마저 손댈 수 없다고 여긴 세례자 요한의 겸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본성상 절대자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의기양양하고, 머리를 높이 쳐들고 땡땡거리고 싶어 하지만 인간은 결국 흙입니다.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통해 훗날 내 머리에 덮힐 죽음의 흙을 묵상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960번의 도전



전북 완주에 사는 차사순 할머니는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결혼해서 농사일을 하며 살았다. 할머니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다. ‘언젠가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손자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고 싶다.’ 할머니는 첫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25점이라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 후로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 시험을 치렀지만 2중 보통 면허 합격선인 60점을 넘지 못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필기시험에 949번 떨어진 후 950번째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드디어 실기 시험을 포함해 960번의 도전 끝에 면허증을 손에 넣었다. 은지성,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순 시기 동안 나쁜 습관 한 가지를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버리는 일이다.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있겠지만 대별하면 밝은 색 계통과 어두운 색 계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희망, 건강, 부유, 낭만, 여행, 오락 등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밝은 면이 있고, 단식, 참회, 실망, 방황, 십자가, 고통, 보속처럼 대부분 피하려고만 하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진리와 생의 가치는 두 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은, 인생의 뒷면을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앞면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생의 어두운 면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단조곡이 장조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음악을 깊이 이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 안에 '쉼'



20세기 초,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금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밀 듯이 밀려왔다. 사람들은 황금을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말을 몰아붙였다. 한편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 주일이 되면 가던 길을 멈추고 텐트를 친 뒤 하루 종일 쉬면서 하느님에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짐을 꾸려 출발했다. 마침내 도착해 보니, 말을 달려 앞서갔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너무 무리하게 말을 몰았던 까닭에 일부는 중간에 병이 나서 죽고, 일부는 여정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송봉모, 『비참과 자비의 만남』



영적 독서 한 권을 정해서 읽습니다.

추천 도서

- ① 프란치스코 교황, 『신앙 생활의 핵심』 ② 전원 신부, 『그래, 사는 거다』
- ③ 황창연 신부,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④ 안소근 수녀,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

* 영적 서적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거울과 같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보고 잘못을 고치며 성덕으로 자신을 장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허영심이 강한 여자들은 자주 거울을 보며 얼굴의 흠을 없애고 머리를 경돈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자신을 꾸민다.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거룩한 책들을 가까이하여 고쳐야 하는 단점을 인지하고 성덕으로 자신을 장식하여 주님의 눈을 즐겁게 해야 한다. / 성 그레고리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여 주었듯이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사순절의 행동 양식은 이마에 재를 얹고 단식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때의 단식은 미용을 위한 단식과는 다른 의미로, 사막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사막은 불모지입니다. 마실 물이 적고 먹을 것이 빈약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정신이 고양되고 뇌가 맑아집니다. 교부들과 현인들도 육체적인 ‘부족함’을 만들기 위해 광야로 나갔고,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사막 체험은 언제나 부족함 없이 살아온 우리들의 생활 습관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부추깁니다. 언제나 풍요로움 속에 사는 사람은 그 가치를 잘 모르거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손 체험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벽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은 고양됩니다. 사순절은 내 평범한 삶에 한 평의 광야를 만들고 거기서 결손 체험을 하는 시기입니다. 광야로 나아갑시다!

바위를 밀어라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다.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너무 힘들었다. 어느 날,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다. 8개월이 지났다.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겼다. 바위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다. 그 결과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와 원통해서 엉엉 울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이 옆에 앉으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가 말했다. “바위 때문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보렴.” 그는 거울 앞으로 갔다. 곧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다. 거울에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었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지...” 하느님의 계획은 바위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아침 기도를 봉헌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대합니다.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은 그냥 실천하는 것입니다. / 유명만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일찍 불렸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변두리, 주변인들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루 종일 일 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의 슬픔과 외로움, 고독을 이해하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루 치 양식을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품삯을 주십니다.

자신의 권익만 보는 기득권자들은 이웃의 존재를 무시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당 공동체에서도 기득권을 행사하려 드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전교 주일 담화에서 “누가 복음 선포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바로 가난한 이들, 작은 이들, 병든 이들, 무시당하거나 잊힌 이들” 곧 오늘 복음에서처럼 의사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전재용 선장



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참치 원양 어선 ‘광명 87호’는 1985년 11월 14일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 구조를 외치는 난파선을 발견했다. ‘베트남 보트피플’이었다. 전 선장은 ‘관여치 마라’는 회사 지침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다 뱃머리를 돌린다. 구조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선원 12명의 식량을 96명의 보트피플과 나눠 먹으며 부산항에서 열흘을 함께 버텼다.

미국에서 간호사가 된 피터누엔. 그는 평생의 은인 전 선장을 찾기 시작한다. 17년 만에 연락이 닿게 된 전재용 선장. 그는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해고 통지를 받았고 당국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다. 여러 선박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한 군데도 연락을 못 받았던 그는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와 멍게 양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재용 선장은 말했다. “보트피플을 구조할 때 제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보트피플은 그날 25척의 배로부터 외면당했으며 26번째인 전 선장의 배에 의해 구조를 받았다.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삶이란 그 무언가에, 그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는 일이다. / 전우익

사순 제1주일



광야에서 유혹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에는 뿔이 달린 악마가 등장하지만 사실 이때의 유혹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세 가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음식으로부터의 유혹, 소유의 목적만을 위한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높은 자리와 존경의 유혹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식과 희생, 겸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 위와 같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고해 성사 내용으로 언급되는 형식적인 단식이나 금육의 의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악마의 계락을 간파할 수 있어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유혹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악마는 부와 권력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말하면서 경계를 요구하십니다. 악마는 이 세 가지 무기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악마의 유혹을 분별해 내고 올바르게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순절의 중요한 영성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과학 기술이나 식량 생산, 언론 폭력같이 우리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 문화에서, 말하자면 세계관에서 생겼다. 세상 위기에 대한 대부분의 해결책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킨 바로 그 세계관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재활용이 세상을 구하지 못하고, 산야 제한이 세상을 구하지 못하며, 열대 우림의 보존이 세상을 구하지는 못한다. 설사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 해도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고 되풀이될 것이다. 진실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인구 조절과 산림 복구, 공동체의 재창조, 물자 낭비의 감소는 이런 시각 변화가 있고서야 가능하다.

통 하트만, 『우리 문명의 마지막 시간들』

*** 햄버거 커넥션 :** 햄버거의 재료가 되는 쇠고기를 얻기 위하여 조성되는 목장에 의한 열대림 파괴 현상이라는 뜻이다.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은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일대 생산지인데, 이 쇠고기는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미각에 잘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가 된다. 이 소를 사육하기 위해 목장을 조성하는데 1인분 고기와 우유 한 잔을 얻으려면 소에게 22인분의 곡식을 먹여야 하며, 소고기 100g 햄버거 하나를 만들려면 열대 우림 1.5평이 목초지로 변해 심각한 환경 파괴를 불러온다고 한다. <지식채널 e>



성당에 10분 먼저 가서 성체 조배를 합니다.

★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 아인슈타인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을 통해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던 하느님께서 이제는 하느님을 직접 파견하시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만큼 인간 구원이 절박하셨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잘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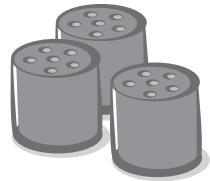
요한복음에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성애와 형제애 같은 피붙이 사랑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 간 사랑이 지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많아야 100명, 200명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숫자는 무한대에 가깝고, 그만큼 보편적이며 범세계적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 안에서 모두 한가족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십계명을 넘어서는 가치관의 변혁이요, 관계의 혁명입니다. 이웃 사랑의 위대함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연탄 은행



연탄을 담아가는 풍경이 재미있었는지 연탄 은행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연탄 한 장에 3백 원이란 것을 알게 된 인근 직장인들은 자판기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그 돈으로 연탄 은행을 후원해주었다. 이름하여 ‘커피 한 잔 줄이기 운동.’ 후원 운동을 펼치는 것은 언제나 나의 몫인 줄 알았는데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점이 나를 더 신나게 했다. 커피 한 잔 줄이기 운동은 불붙듯 번졌고, ‘월급 타면 연탄 나누기 운동’ 등으로 확산되어갔다. 한겨울, 미끄러운 길에 기꺼이 제 몸 부수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연탄처럼 사람들도 그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연탄과도 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이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하다. 허기복,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



즐거운 불편1: 양치 컵을 사용합니다.

* 양치 컵을 사용하면 매번 9.5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4인 가족은 20리터의 물로 하루를 견딥니다.



★ 많은 이를 돕고 구원하는 일만큼 행복하고, 인간에게 어울리며, 하느님과 닮은 일은 없다. / 페트라르카

사순 제1주간 화요일



모든 신자들은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먼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기(祈)는 원함ियो, 나아가 절규를 의미합니다. 삶의 절박함, 간절함이 기도의 기본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하고 또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자들도 어느 시점이 되어서야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가 절박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오늘 복음에 서처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절규합니다. 삶이 치열해져야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기도는 아브라함의 간구(懇求)이며, 사무엘의 들음ियो, 엘리야의 영혼의 쉼입니다. 다니엘의 찬미이며, 다윗의 고백ियो, 세례자 요한의 외침입니다. 성모님의 숙고함이며, 니코데모의 찾음ियो, 나환자들의 간절(懇切)함입니다. 탕자의 용서 청함이며, 참새의 재잘거림ियो, 예수님의 감사함입니다.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는 '해표지증'으로 태어났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를 치고 컴퓨터도 한다. 그는 6살 때, 두 개의 발가락을 분리하는 수술을 했고 보조 기계를 이용해 연필로 글을 썼다. 닉은 호주 공립 학교의 첫 번째 장애 학생이 되었지만, 왕따를 당해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여러 번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하느님께 기도하던 중, 자신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Life Without Limbs(사지 없는 삶)"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웠다. 그는 말한다.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제가 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똑똑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자성,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가족에게 감사할 일을 다섯 가지 떠올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 에디슨

사순 제1주간 수요일



철들었다는 말은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만 철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른에 들어야 할 철이 있고, 마흔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 철에 맞는 행동을 하듯 사람도 그 시기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참존재가 됩니다. 봄이 오지 않았는데 개구리가 먼저 나오면 위험합니다. 가을에 미리 핀 개나리는, 겨울을 견디고 봄에 피는 개나리에 비해 참 싱겁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못한다면 역시 철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시대의 징표를 감지하라고 하십니다. 영혼이 민감하면 만물로부터 의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요나의 싱거운 말 한 마디도 놓치지 않는 니네베 사람들은 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돌부리에 채여도 깨어 있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살고 있으니 사순절에 맞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 하늘나라의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입니다.

형제

잭 캘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일이다. 그때는 기근이 극심한 때였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그 기자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볼록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으며 피부는 백 살이나 된 사람처럼 보였다. 마침 일행 중의 한 사진 기자가 과일을 하나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없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 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다.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다. 형은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입 베어서는 그것을 씹었다. 그리고는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 안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는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 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러나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다. 김혜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나보다 급한 이웃에게 한 걸음 양보합니다.

★ 속도를 얻으면 풍경을 잃고 속도를 잃으면 풍경을 얻는다. / 김경진

사순 제1주간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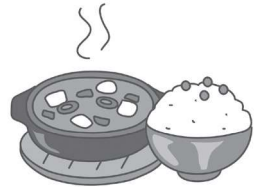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은 종교의 기본 심성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구하고 찾아서 얻은 경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구하려는 나의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마르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둘 다 하느님을 손님으로 맞아 대접하는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마르타는 질책을 받습니다. 전자는 행동과 마음이 일치한 배려였으나, 후자는 마음은 판 곳에 있는 겉치레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타의 행동 속에 마리아를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하느님을 감동시킬 수 없었고, 주님의 책망이 따른 것입니다. 만약 마르타가 묵묵히 전심으로 주님 시중을 들었다면, 하느님의 축복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역 기도

주님,
저는 굉장한 일을 하지도 않고,
밤늦도록 기도하지 못하고 새벽녘에도 당신을 찬미할 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르타의 손과 마리아의 마음을 가졌어요.
구두를 닦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고, 마루를 닦으면서 당신을 생각해요.
차분히 앉아서 당신을 생각할 틈은 없지만
문득문득 스쳐 가는 생각들과 마음의 기도를 받아 주세요.
당신께서 이 부역에 함께하시어
제가 만든 음식으로 가족들이 사랑과 힘을 얻게 해 주세요.
제 모든 근심과 불평을 없애 주시고 당신의 평화를 심어 주세요.
사랑이신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께 맡깁니다.



공공 기관 근로자(경비, 환경미화원, 버스 기사)를 만나면 웃으며 인사해 주세요.

★ 남이 보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행복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 김별아



용서와 화해는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할 만큼 용서는 평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저변에는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어 남을 해하고자 하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입니다.

용서할 서(恕)를 풀어 보면, 남을 용서하는 마음(心)의 자세가 서로 동등해야(如) 한다는 뜻입니다. 곧,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용서는 정정당당한 내가 위에서 잘못된 상대방에게 내려 주는 선심성의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 준다’는 말은 용서를 덤이나 하사품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 이러한 관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잘하면, 다시 말해 당신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같은 마음(如心)이 아닌 상태에서 어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용서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을 가없이 여기시고 동고동락하고자 하시는 어린 마음에 기인한다면 우리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하느님 앞에 나와 용서라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다른 신들’

사람들은 과거의 원한, 주고받은 상처들,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 등으로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가 하느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면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삼지는 않는지요? 내가 사람들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요구를 물리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따라가는 ‘다른 신들’이고 내가 부수어 버려야 할 우상입니다. 우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아굽처럼, 다른 신들을 따라가려는 유혹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소근,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



식사 후 그릇 정리를 돕습니다.

★용서란, 내 안의 가파른 계단을 아름다운 꽃길로 바꾸는 것이다.



어느 시인이 사랑은 ‘남에게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은 곧 내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동참하고, 공유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Koinonia)’를 친교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중국어로는 공용(共融)이라 합니다. ‘함께 나누고 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것을 덜어 함께 사용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순전히 아버지 하느님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초월성과 완전성에 초대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을 따라 태어난 인간은 사실 하느님 속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마태 5,48)이 되어야 합니다.

바보로 살기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는 아름다운 일화를 많이 남겼다. 세상 사람들은 늘 불쌍한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던 장기려 박사를 ‘저 사람 바보 아냐?’ 하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퍼 주던 그에게 내심 ‘이상한 사람’이라고 빈정거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바보로 살기’로 걱정했던 사람이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담당 레지던트였던 장기려 박사를 가리켜 ‘당신은 바보 아니면 성자’라고 한 말이 실감된다.

차동엽, 『무지개 원리』



즐거운 불평2 : 대형 마트 대신 전통 시장, 동네 구멍가게를 이용합니다.

★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에 집착한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의해 매겨진다. / 장기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여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한 사람은 변화를 수용하고, 다른 사람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고향을 떠나 멀고 험난한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중 영광스럽게 변모하시자 베드로 사도는 변화를 거부하려 합니다. 변화보다 현상 유지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부르심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험난한 여정이지만 분명 축복의 길입니다.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자니 왠지 어감이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쓰였던 적이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변하듯 우리 모두는 언제나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는 다른, 변화된 사람입니다. 철학에서는 ‘이 세상에 언제나 변함없는 것은 결코 없다.’라고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변화는 성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반대로 살게 되었구나

나를 비우는 것은 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탐하는 일, 싫은 사람, 피곤한 시간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 더욱이 어둠 속에 내던져진 채 위로도 빛도 없는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순교와 같다. ‘나’가 상처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비울 수는 없다. 참사랑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우고 내던질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분은 높은 분이었지만 낮아지셨고 부유한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나는 거꾸로 낮은 자가 높이 오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 주님과 ‘반대로 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김수환 추기경, 『바보가 바보들에게』

*** 용서 주간 :**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 ‘용서 주간’이라는 관습이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 이웃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로 서약하는 행사이다. 그 시간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시간만은 아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용서를 청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 김익검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마태 16,13) 하고 물으시고,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 하고 물으십니다. 신앙인이란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전자는 타인을 향한 관심의 질문이지만, 후자는 나와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곧 교리 교육이나 선교를 위한 지식 등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신앙의 심화라고 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구세주, 주님이라는 보통 명사가 나의 삶에서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 있는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공부와 성경대로 살아가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라는 질문은 나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신앙과 미신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진지하다. 그들은 무당이 써 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에 비할 수 없도록 소중히 여긴다.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에게서 굿 한 번 하기 위해 지불하는 액수도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액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고 ‘미신을 쫓고 있다’고 말한다.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 등의 내 소유물로 신을 달래고 어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반면 절대자이신 신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http://cafe.naver.com/paolomin>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 ‘교황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사순 제2주간 화요일



겸손은 만덕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의무적 덕행입니다. 진정한 겸손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빛이 납니다.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높여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행하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높이 오르기 위한 잠시의 책략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기 위한 공생의 마음입니다.

모두 저 혼자 잘 먹고, 혼자 다 하려 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약육강식이나 아귀다툼을 하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내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의 기회를 남에게 주는 이유는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므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사랑과 바로 연결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서로 돕고 사랑하여 모두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생해야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 중에 재능이 더 뛰어난 아이가 있어도 부모는 오히려 조금 뒤처지고 부족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듯이, 하느님은 인류가 서로 양보하고 먼저 남을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지애(謙遜之愛)입니다.

VIP 메뉴판

얼마 전 식당에서 겪은 일이다. 작은 백반 집에서 급하게 식사를 하는데,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 한 분이 식당에 들어와 밥을 청했다. 주인아주머니는 환한 미소와 함께 계산대 안쪽에 특별하게 준비된 메뉴판을 할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었다. 메뉴판에는 'VIP용'이라고 쓰여 있었다. 순간적으로 똑같은 손님인데 '누구는 VIP 손님이고 누구는 일반 손님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상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슬쩍 VIP 메뉴판을 보았다. 그런데 VIP 메뉴판의 식사 가격이 일반 가격의 1/3 밖에 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말했다. "손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그 어르신은 혼자 외롭게 사는 분인데 공짜로 드리려고 하면 식사를 안 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상대방보다 3초 먼저 인사합니다.

★ 사랑은 많이 양보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거든.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봉사의 영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참된 봉사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봉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봉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일부는 봉사라는 미명하에 사욕을 채우기도 합니다.

노후에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진행되는 봉사의 양상을 보면 그 참영성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짓값으로 사회봉사를 하라고 합니다. 의무 방어, 선심성 베풀, 사랑이 배제된 사회 참여 등은 봉사의 영성이 결핍된 행동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깊은 영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진정한 봉사를 위해서 자신의 봉사 영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봉사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남을 인정하는 삶이며, 남을 위한 삶입니다. 삶의 중심이 나보다는 남을 향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봉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봉사의 다른 영성은 겸손입니다. 남을 섬기려면 깊은 내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봉사에 임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많거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자세에서 남에게 배푸는 배려가 바로 봉사의 참영성입니다.

삶의 의미들

곰탕이면 곰탕,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한 가지라도 잘 만들어 팔아야지, 된장찌개, 국수, 돈가스 등 여러 가지를 성의 없이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 돈보다는 사람을 벌라는 것, 늘 자신이 들어갈 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남들이 알아주는 직위도 호주머니에 넣고 살아야 한다는 것 등 재미있기도 하려니와 나는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온 삶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다. 장인과 전화 통화를 한 날이면 나는 상담자들을 더욱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었다. 윤학, 『잃어버린 신발 열 켤레』



오늘 1시간 동안 TV, 휴대폰을 끄고 영적 독서를 합니다.

★ 사랑은 그 자체로 머무를 수 없다.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행동이 바로 봉사이다. / 마더 데레사

사순 제2주간 목요일



세상의 에너지는 없어지지도 생겨나지도 않는데, 이것이 총열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길게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 전체에서 겪어야 할 행복과 불행은 정량이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사람도 없고, 언제나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역시 완전한 행복의 상태도 아니고, 영원한 불행의 상태도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만 보아도, 행복과 불행은 각기 제 몫이 있습니다. 평생 행복만 누리던 부자는 죽어서 저승으로 내려갔고, 남은 것은 불행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 속에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부자는 지상에서 온갖 행복을 다 누린 데 비해 라자로의 불행만을 겪었으니, 이제 부자에게는 불행이 남았고, 라자로에게는 행복이 남았음을 지적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도, 지옥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 역시 모두 성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악마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맹점이 있고, 아무리 못된 사람 같아 보여도 뒷면에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좋다고 항상 붙어 있을 것도 아니고 싫다고 소름 끼치듯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물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달은, 공동체를 잘 살아가는 작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내 존재가 내가 만난 그 누구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 존재를 세상에 구원의 선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도, 당신의 손발에 못을 박고 창검으로 찌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자신을 세상의 온전한 선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통해 누군가에게 건네준 선물이 그 인생에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된다면, 오히려 나 자신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이 나를 인간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전원, 『그래, 사는 거다!』



즐거운 불평3 : 이면지를 메모장으로 사용합니다.

★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 윈스턴 처칠



오늘 독서에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애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원초적 미움 이야기는 작가 토마스 만이 엄청난 분량의 소설로 썼을 만큼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중 미움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미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미움은 ‘밀다, 밀어내다’에서 파생된 말로 배척의 감정을 말합니다. 미움은 화나 분노에 비해 조용한 것 같지만, 곰팡이처럼 은근하지만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무서운 파국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미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속내는 매우 복잡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밖으로 향하는 행동이라면 미움은 안으로 향합니다. 언뜻 안에서 삭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심리적 기제가 작용합니다. 그냥 참으면 손해 보는 것 같으니 보상 심리로 미움이라는 심리 기제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미움은 적극적 행위를 유발하는 내적인 동력이 됩니다. 미움은 마음의 화살이니, 방향만 잡으면 언제든지 활시위를 떠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움의 치명성을 간과하지 맙시다.



말의 힘

서울 성수 고등학교 권정은 선생님은 말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 2개의 유리병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한쪽 유리병에는 ‘감사합니다’를 쓰고 다른 한쪽에는 ‘짜증 나’를 써 놓았다. 교실 뒤에 놓고 학생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한쪽 병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했다. 3주 동안의 실험이 끝나고, 선생님도 아이들도 모두 놀랐다. ‘감사합니다’라는 병을 열어 보니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짜증 나’라고 쓴 병에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시커먼 곰팡이가 폼이 났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 환경 상식 : 비누 조각 오래 쓰기

거의 다 써 가는 비누 조각들은 스펀지를 이용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다. 얇은 스펀지 두 장을 맞댄 후 한쪽만 남기고 꿰매서 주머니를 만들어 비누 조각을 거기에 넣으면 물이 묻을 때마다 비누의 거품이 스펀지에 묻어나와 비누 조각을 편하게 쓸 수 있다. 또 비누 바닥 면에 은박지를 붙여 두면 물기에 쉽게 녹지 않아 경제적이다.

사순 제2주간 토요일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는 방식이나 가치관 등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회개한 사람이 얼마 안 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회(回)’는 나함(Naham), 슬퍼하다, 뉘우친다는 뜻이고, ‘개(改)’는 슈부(shubu), 되돌아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전자는 마음 다짐이고, 후자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뉘우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까지 합쳐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유가에서는 군자가 지녀야 할 덕목 중 하나가 반신이성(反身而誠)이라 하였는데, 역시 두 가지 행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본 뒤에야 비로소 성(誠)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회개는 전과 후가 줄타동시처럼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일어납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한순간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아갈 곳을 정해 가야 합니다.

성덕을 향한 한 걸음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쁘게 살고 봉헌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선물이 되도록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인이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사다가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뒷담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말합니다.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성덕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또 집에서 아들이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나는 너무 피곤하단다.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거든.”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야, 앉아서 아이에게 귀를 기울여야지. 아이가 필요로 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아들의 이야기에 인내심 있게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성덕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바칩니다. 이것도 성덕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사들과 함께합니다.

★ 내가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내일은 누군가가 그 그늘에서 쉬어 갈 수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존재와 소유 문제를 정리합니다. 은총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 모든 양분을 사용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마태 6,25) 하십니다. 곧, 소유의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하느님 나라와 진리를 먼저 추구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존재적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존재와 소유의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물이 나의 존재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자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꾸려 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소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은 우루과이의 무히카 대통령이다. 월급의 3분의 2는 기부하고, 3분의 1만으로 생활하는 농부 대통령이다. 대통령 궁을 노숙자 쉼터로 내주고 수행원을 포함한 4명만을 데리고 외곽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대통령을 지나치게 받들어 모시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독재와의 오랜 투쟁에서 6번이나 총을 맞았고, 삶은 탈출과 감금의 연속이었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정치 이념보다는 국민의 행복에 관심을 두었다. 20년 된 폭스바겐 승용차가 그의 재산 전부다. 은행에 예금 통장 하나 없다. 가끔씩 농사를 지어 시장에 내다 파는 걸로 생활비를 보탠다. 그의 임기 동안 관료들의 부패가 사라졌고 경제가 매년 5% 이상 성장했으며, 국민 GDP가 15,000불을 넘어섰다. 그는 강조한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잘사는 것보다 ‘행복’에 있다고.



가족과 함께 가까운 성지를 순례합니다.

★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사명이다. / 오프라 윈프리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 가셨다가 큰 봉변을 당하실 뻔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 고향 출신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 나왔다고 하면 두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빈정대고 미심쩍어합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후자였습니다. ‘저 친구 어린 시절을 내가 잘 아는데, 도대체 무슨 수를 써서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들리는 말로는 기적도 행하고 말도 아주 잘한다는구먼. 오늘 우리 동네로 들어온다니 한번 가보세. 뭐라 말하는지 들어보면 진짜인지 거짓인지 금세 들통 나거든.’

그렇게 모인 그들에게 진복팔단(眞福八端)은 우스갯소리요, 이웃 사랑은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기적도 일으켰다더니 여기서는 기적이 안 되나? 기적 하나만 일으키면 금세 증거가 될 텐데 말이야!’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치명적인 태도는 선입견과 타성적 태도입니다. 이는 신앙의 결석과도 같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기 전에는, 진리가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또 인내하라



뇌성 마비로 못쓰게 된 오른손을 뒤로 감추고 왼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일 15km를 걸었던 전설적인 영업왕 빌 포터.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2002년 <도어 투 도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그가 말했다. “중대한 결정만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사소한 결정입니다. 한 번 더 웃어 주고 손 흔들어 주고 아픈 친구에게 전화해 주는 등 작은 행동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지성,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오늘은 무조건 웃는 날 ^^

* 10초 동안의 웃음은 4분 동안 조깅한 효과를 냅니다.

★ 열정은 성공의 열쇠, 성공의 완성성은 나눔이다. / 워런 버핏

사순 제3주간 화요일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평생토록 행할 만한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서(恕)라고 합니다. 서는 충(忠)과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충이 전제이고 서가 결과입니다. 자신이 먼저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서’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남을 용서하는 데 일곱 번이면 충분한지 묻습니다. 속으로 ‘여덟 번째쯤에는 따끔하게 혼내도 될까요?’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일곱 번의 용서는 판단의 합리화를 위한 준비 동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2)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아예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평생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행위에서 가장 하느님을 닮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평화로 향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려면 먼저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이 있어야만 서가 나옵니다.

평화란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 가는 것
박노해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를 양보합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 스위팅

사순 제3주간 수요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정한 율법 규정들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율법의 참정신보다 외형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 5,17)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서 율법을 어기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먹는 것을 허용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손 씻는 예식도 소홀히 하십니다.

말씀과 모순된 행동을 통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빠진 정신, 곧 사랑을 채우려 하셨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계명을 잘 지켜 온 부자 청년을 칭찬하시면서 사랑의 결핍을 지적하십니다. 구약의 ‘하지 마라’라는 소극적 율법을 ‘하라’라는 적극적 계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정수입니다. 성사는 외적으로는 규정으로 보이지만, 내적인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제8성사라고 부를 만큼 모든 성사의 기초가 됩니다.

‘자가 발전’

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장에 대한 욕구와 능력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부자 나라 아이건 가난한 나라 아이건, 어른이건 아이이건 똑같이 그러하다.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른들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아이 옆에 있으면서 조금씩 촉진해 주고, 조금씩 말고 그저 지지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가발전’한다. 그렇게 성장한다. 누가 잡아끌어 따라가다 보니 발전되는 성장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을 이끄는 성장, 그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었다.

김정화, 『여행하는 카메라』



상선
한 가지

즐거운 불편4 :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합니다.

* 나눔의 기적

- ❖ 1,000원이면, 아프리카 친구 10명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고,
- ❖ 3,000원이면, 북한 어린이들에게 한 달간 분유를 먹일 수 있고,
- ❖ 5,000원이면, 이라크 어린이 50인분의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어요.

★ 아이들은 당신이 제공한 물질적인 것보다 당신이 그들을 소중하게 여긴 사실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 잭 캔필드

사순 제3주간 목요일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다.”(루카 11,23)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거나 편법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반대하고, 둘이 다른 셋을 반대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오류가 들고 일어나니 분열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중립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방문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귀국 편 기내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만나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인간적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이 된다는 것은 진리 편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칼과 같아, 이것과 저것을 정확히 자릅니다.

다들 그렇게 한단다

한 아버지가 여섯 살짜리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과 그 밑에 만 원 짜리 몇 장을 감추어 건네줬다. 그러자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보내 주는 것이었다. 아이는 눈이 뚱그려져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괜찮다, 애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방학을 맞아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주인아저씨는 싱싱한 과일은 잘 보이게 해놓고 오래된 과일은 뒤에 감춰 두었다가 끼워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서 과일을 판단다.”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 회사에 취직을 했으나 큰 횡령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면회를 온 부모님들이 울부짖었다. “아이고 이놈아! 년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왜 너는 가르치지도 않은 짓을 했느냐 말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에요.” 이현경



웃장을 정리하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다.

사순 제3주간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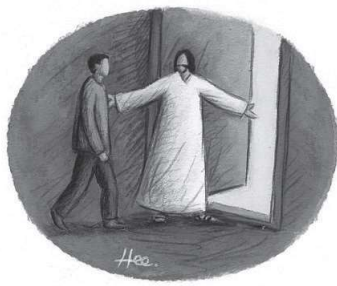


성호를 긋는 행위는 우리 신앙의 표지이자 핵심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형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며 조화입니다. 수직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고 수평은 인간 상호 간의 사랑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천인합일(天人合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호를 그을 때 수직을 먼저 긋고, 수평을 긋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성경에서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질책과 비판을 받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 학자는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비록 그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구약 사람이지만,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꿰뚫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국에 들어서고 있다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장님에게 언제나 웃으시니 참 보기 좋다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왕국에 들어서고 있다.' 아침마다 들어설 공간이 있다는 것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그는 참 고맙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일터를 왕국으로 여길 때 나는 일터에 들어서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내 일터를 귀찮고 하찮은 곳으로 여길 때 나는 그곳에서 걸인이 됩니다. 송정림, 『나는 왕국에 들어서고 있다』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삼위일체를 찬미하며 하느님의 현존을 느껴 봅니다.

* 축복해 줍시다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 십자가를 손에 들거나 성수를 찍어 성호를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를(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말하면 된다. 이 방법으로 가족이나 누군가를 멀리서도 축복할 수 있다. 매일 이렇게 축복해 준다면 그 열매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원만하지 못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말 없이 축복해 준다면 빠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 사랑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임무가 있다. 하나는 주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 / 존 보이스

사순 제3주간 토요일



호세아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부간의 사랑과 신의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연서와 같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먼 옛이야기가 아니라, 이혼이 급증하고 가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입니다.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평화스럽지 못한 것은 부부 갈등에서 파생된 가정 분열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대부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영혼 없는 헛이야기입니다. 제 아무리 자신의 옳음을 주장한다 해도 신의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모두 헛수고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호세 6,6)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이는 부부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바리사이가 하느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의로움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의 자만에서 나온 공로는 하느님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과 신의가 없이 하느님께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얻기 전에 먼저, 부부간의 사랑과 신의를 찾아야 합니다.

부메랑



어떤 집에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부부 싸움을 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소년이 들을까 조심조심 다투다가 날이 가면서 싸움 소리도 점점 커졌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비위생적인 부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급기야 소년의 어머니는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한 사람을 택하라”는 마지막 선전 포고를 한다. 결국 소년의 아버지는 할머니가 방을 하나 얻어 할머니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사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삿짐을 꾸렸다. 물건을 차에 싣는데 소년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 품목을 적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너, 왜 그런 것을 쓰니?”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다. “다음에 저도 어머니를 내보낼 때 챙겨드려야 할 품목이라 잘 적어 놓으려고요.” 이석권



오늘 하루 24시간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 이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께 대해 죽지 않게 된다. / 마이스터 에카르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과 동생은 중국의 두 교회를 생각나게 합니다. 중국의 지하 교회와 애국 교회는 불목과 미움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의 형처럼 중국에서는 지하 교회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하 교회는 문화 혁명이라는 암흑기를 지나오면서 독선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국 교회와 공산당 체제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자신들만이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교회라는 의식은 어떤 친교와 일치의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복음의 큰아들이 동생에게 반목과 불신, 미움을 느끼는 입장과 같습니다. 형에게는 동생의 회개 자체가 도전인 것입니다. 동생이 죄를 짓고 아버지 곁에서 사라져야 자신의 충성과 효성이 더욱 빛난다고 생각한 큰아들은, 회개했다고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동생과 그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아버지께 배신감 같은 뒤뜰어진 정서를 표출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옳음만을 보려 하면 주위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의로움’과 그 폐쇄성은 사랑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내 동생 착해요

직장에서 참 건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있다. 그는 시각 장애인 형과 둘이 사는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형을 복지관에 데려다 주고 퇴근할 때면 복지관으로 가서 형을 데리고 집으로 간다. 그날은 어둑해진 퇴근길에 형을 데리러 서둘러 가다가 자전거를 들이받고 말았다. 그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이 크게 다쳤다. 경찰서에 간 동생은 맨 먼저 형에게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 경찰이 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동생을 바퀴찢었다. 수하기 너무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동생은 형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다. “형, 걱정하지 마, 곧 갈 거야.” 그러나 형은 전화를 끊고 동생이 있다는 경찰서로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앞을 보지 못하는 형은 동생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채로 경찰서 안을 서성거리며 애타게 이 한마디만을 반복했다. “내 동생 착해요…… 내 동생 착해요…… 내 동생 착해요…….”

송정림,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건네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 폴 발레리



오늘 복음에서 왕실 관리가 예수님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 청하는데, 이는 자신이 몸소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 예수님을 보러 올라왔음을 내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가지지 않고 그저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요한 4,50)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서운한 대답입니다. 특히 높은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찾아와 청했는데 문전박대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겸손한 왕실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할 때 가끔 떼를 쓰거나 하느님을 헐박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하느님을 조종하려는 자세는 기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며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시란다



안젤로 주세페 론칼리는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처 작은 시골 마을의 가난한 소작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형제 열 세 명 중 장남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부모, 고모들, 삼촌들, 사촌들까지 모두 마흔 세 명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다. 이들 가족은 흉년이 들면 때때로 굶어야 했다. 빵을 매일 먹는 것도 힘들었고, 옥수수과 보릿가루로 만든 죽이 주식이었다. 이런 형편인데도 안젤로의 어머니는 식사 때마다 자리 하나를 늘 마련해 두었다. 안젤로는 회상했다. “우리 집은 아이들 20명이 수프가 나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걸인이 문간에 나타나면 갑자기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좁혔습니다. 어머니는 걸인을 식탁에 앉힌 뒤 그를 위해 남겨 둔 음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곤 늘 그러셨습니다. ‘우리 식탁에 앉아 있는 이분은 주님이시란다.’” 안젤로 주세페 론칼리는 훗날 요한 23세 교황이 되셨다. <마리아>192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의 시간 5분을 내어 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이나 다른 이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 헬렌 켈러

사순 제4주간 화요일



물이 치유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물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며칠 동안 광야를 달려와 갈릴리 호수를 보았을 때 그 물의 원천을 보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광야의 한가운데에 어찌면 저렇게 깨끗한 물이 가득 모여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생각하였지만,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헤르몬 산이 멀리 보이는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의 ‘게파 동굴’을 찾아갔을 때 마침내 답을 얻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눈이 내리는 헤르몬 산의 눈 녹은 물이 모래 산속으로 숨어들어 몇 십 리를 지하에서 흐르다가 마침내 지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을 따라 우거진 계곡을 두어 시간 내려가니 성서 구절이 절로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갔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에제 47,1,9.12.) 구불거리며 흘러가는 사막의 기다란 녹색 띠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욕심

나는 죄의 근원들 중의 근원은 결국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과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욕심이고, 인색은 정당한 이유나 목적 없는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며, 음욕은 사람과 사랑에 대한 빚나간 욕심이다. 분노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고, 탐욕은 먹고 사는 데 필요 이상으로 쌓으려는 욕심이다. 질투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심이요, 나태는 이 세상을 나 혼자만 편하게 살려는 욕심이다. 최강, 『나는 넘버 쓰리가 두렵다』



즐거운 불편5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3월 9일 사순 제4주간 수요일



이사야 예언자는 희망 전달자입니다. 그의 말은 항상 다정다감하며 용기를 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의와 심판, 공정 등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연히 하느님도 엄격하고 질책하며 판단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뺨뺨한 머리를 쳐 들고 하느님께 불의와 배신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의 분노와 질타는 예언자를 통해서 내려왔고, 분열, 왕국 멸망, 노예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거리며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이사 49:14)고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주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용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메시아의 희망과 사랑을 예고한 예언자입니다. 오늘 그의 말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나는 다리를 잃어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때 위안이 되어 준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나의 아픔을 낱알이 알고 있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우셨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다. 한 어린 꼬마가 차도로 뛰어들고 있었다! 그런데 내 눈 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빠가 보조 다리도 없이 전속력으로 아이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아빠!” 놀라 소리쳤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다. “아빠는 사실 보조 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4년 동안 보조 다리를 짚고 다니셨던 거야.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몰라.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 그만...”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지고 갈 힘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 당신이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내려가는 길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 고은

사순 제4주간 목요일



유다인들은 신심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율법에 충실하고 철저하게 야훼 하느님을 공경하는 ‘열심인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열심인 사람들 중 자신을 속박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갇혀 버려 독단의 늪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틀’ 안으로 하느님까지 끌어들이려 합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 온 모세이다.”(요한 5,45)라는 말씀은 바로 그 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틀에 갇혀,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분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틀에 ‘안주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와 너무 달랐습니다.

자신의 판단만을 믿는 사람은 진실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진리 앞에서 인간의 자기 확신은 역지이자 무지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자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당신들의 하느님을 믿고 싶습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 정부는 시민권이 없는 일본 이민자들을 수용소에 집어넣었다. 장미 농장을 경영하던 일본인 부부도 콜로라도 수용소에 가게 되었다. 삶의 터전인 장미 농장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무척 가슴 아팠다. 그런 그들을 이웃 스위스인 부부가 위로하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저희를 믿을 수 없다면 저희가 믿는 하느님을 믿으세요.” 수용소에서 2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 보니 농장은 그전보다 더 잘 관리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 있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테이블 위에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고 그 옆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다. 예금 통장이었다. 스위스인 부부가 그들의 장미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모두 저금해 놓았던 것이다. 통장 옆에는 “하느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인 카드가 놓여 있었다. 일본인 부부는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들의 하느님을 우리 하느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송봉모, 『삶의 우물가에 오신 말씀』



오늘은 내가 먼저 곁을 내어 주기, 내가 먼저 풀어 주기,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랑해 주기

★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 헬렌 켈러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두 맹인을 고치신 후에도 그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마을로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복음을 보니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요한 7,27).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갇히어 새로운 가르침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생각은 오만하게도 믿음마저 자기 것인 양 족쇄를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던 많은 표징들은 제쳐 놓고, 출신 성분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깨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틀을 깨는 것이고, 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판단 중지(에포케)는 진리로 나아가는 첫 마음입니다.

선입견

평생 근검절약하고 노력해 큰 부자가 된 노부부가 있었다.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었던 노부부는 전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노부부는 학교로 찾아가 수위에게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수위는 노부부의 남루한 옷차림을 쳐다보고는 거만한 태도로 비웃듯이 말했다. “총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만나 줄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노부부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버드 대학에 기부할 돈으로 자신들이 직접 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심하여 전 재산과 열정을 바쳐서 학교를 지었다. 그 대학이 미국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이다. <http://blog.daum.net/paulsong> <사울의 칼>



예수님의 수난을 함께 걷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 정말 고쳐야 하는 건 누군가를 고치겠다는 내 마음이다. / 법륜



카이사르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 보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 문입니다. 성경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사이나 율법 학자들은 마치 성경을 모두 꿰고 있는 것처럼 권위를 내세워 말합니다. “메시아가 갈릴래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요한 7,41)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은 자기만족, 자아 도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새로움을 볼 줄 알고 진리에 마음을 열 줄 아는 니코데모는 그들의 닫힌 마음을 경고합니다. 무식한 성전 경비병들도 진리를 보고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요한 7,46)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 처럼 굳어 버린 율법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래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요한 7,52)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셨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 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루카 10,21)

로젠탈 효과

1968년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 교수 로버트 로젠탈과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레노어 제이콥슨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샌프란치스코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한 다음, 그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20퍼센트의 명단을 선생님에게 주며 ‘IQ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믿게 했다. 그리고 8개월 후, 연구팀은 이전과 똑같은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IQ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선정했던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팀은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이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어떤 관점에서 대하느냐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로젠탈 효과’라고 말한다. 은지성,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습니다.

★ 신앙은 길을 뚫는 행위이다.

무감각이라는 산맥을 끝없이 뚫고 영혼의 통로를 내는 것이다. / 요수아 헤셀



서(恕)를 풀면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如)와 심(心)이 합쳐진 서(恕)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서로 동등해야(如) 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는 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때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는 말도 용서를 어떤 덩이나 하사품처럼 이해하게 합니다.

실제 이러한 관념이 우리 삶에 들어 있습니다. 뻣뻣한 자세로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것처럼, 선심 쓰듯 용서했다고 하지만 서운해지면 찬 바람에 소름 돋듯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지 않으니, 진정한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용서의 올바른 위치를 보여 줍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다고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여인을 끌고 와 돌을 쥐고 위에서 굶어봅니다. 여인은 땅바닥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구부리고 앉아 뭔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하고 심판적인 수직적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앉아서 여인과 수평적 위치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주님이 눈을 들어 여인의 눈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 진정한 여심(如心)이 이론 아름다운 서(恕)의 장면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어쩌다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실 때면 다 찌그러져 가는 판잣집이 누추하다며 황송해 하시고는 얼른 구멍가게로 달려가 맥주 한 병을 들고 오셔서 따끈하게 데워 주시던 어머니! 어머니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요. 자식이 굶어도, 병들어도, 월사금을 못 내고 풀이 죽어도 어머니는 모두 ‘당신의 죄가 많아서’라고 하셨지요. 따지고 보면 전쟁 탓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탓이고 식구들이 너무 많은 탓이고 피난살이하던 모든 어머니의 공동된 설움이건만 유독 어머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죄 탓이라고 하셨지요. 이제 어머니의 나이가 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셔서 죄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죄가 큼니다. 이인옥, 『갈보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은혜를 체험했던 기억 다섯 가지를 적은 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내가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느님은 나에게 두 걸음씩 다가오신다.
내가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면 하느님은 나에게 달려오신다.



빛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일 것입니다. 그들의 빛에 대한 간절함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여의사가 한밤중에 안약인 줄 알고 눈에 다른 약을 넣었다가, 망막이 타서 몇 달 뒤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이 그리울 때면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직접 손끝으로 더듬으며 기억을 되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시력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맑은 호수와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데,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고 느낍니까? 만약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보통 시각 장애인들은 ‘파란 하늘’과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늘을 얼마나 바라보며,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고 있나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자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얼마나 갈구하며 살아가나요?

약속, 믿음, 느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느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주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느낌이 높은 성벽 위를 기어오르고 있다. 주님의 약속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를 이어 우리 믿음이 따라가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느낌이 따라가고 있다. 믿음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약속을 계속 바라보는 한, 셋은 모두 성벽을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속에서 눈을 떼고 느낌이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 뒤를 돌아다보면 그 순간, 믿음도 느낌도 성벽에서 떨어진다. 주님의 약속만이 성벽에 붙어 있게 된다. 곧 믿음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느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이다. 송봉모, 『비참과 자비의 만남』



빛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음의 어둠을 성찰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뱀은 땅을 기어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뱀이 높이 달려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뱀은 독이 강합니다. 뱀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죽어서 높이 달린다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위협으로 여기고 광야의 뱀처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 처형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현양(顯揚)은 ‘높이 드러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뜻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뱀에 물렸어도 높이 달린 구리 뱀을 보면 살아났습니다. 구리 뱀이 구원의 표지이듯 십자가 역시 구원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3,14-15)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뜻에 순명하지 않는다.
 나를 빛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나를 길이라고 말하면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나를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지혜의 원천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나를 영적으로 풍요롭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청하지 않는다.
 나를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를 정의롭다고 말하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너를 단죄해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독일 뢰베르크의 주교좌 성당 정문에 써 있는 글



가족이 함께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 오 예수님, 당신은 저희의 일을 필요로 하시지 않고,
 다만 저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십니다. / 성녀 소화 데레사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요한8,34)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죄(罪)라는 한자는 그물망(罔)과 아닐 비(非)의 합성어로, 그물에 갇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의 몸과 마음이 그물에 묶인 것처럼 인간답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종이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된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는 자살로 향하는 길이며, 누구나 죄 가운데 살면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죄는 대단히 잔혹한 주인이며,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됩니다. 반대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라는 주님의 말씀 역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행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수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사죄

1970년 12월 7일,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를 방문하자마자 곧바로 국립묘지로 향했다. 그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군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든 추모의 묘역이 있는 곳이었다. 빌리 브란트가 위령탑 앞에 섰다. 그는 위령탑 앞에 헌화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잠시 묵념을 하는가 싶더니 텅텅 무릎을 꿇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추적추적 오는 빔속에서 그는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묵념했다. 그건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폴란드 유대인들에게 올리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며칠 후 세계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난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고 평했다. 은지성,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상선
한 가지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일까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을 논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사건을 논한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논한다. / 엘리너 루즈벨트

사순 제5주간 목요일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 속에는 계약(契約)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이란 어떤 일에 대하여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고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에는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바탕에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계약을 제안하신 이유는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무상으로 베풀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99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며 계약을 제안하십니다. ‘아브’는 아버지, ‘함’은 민족이라는 뜻으로, 하느님께서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쌍방의 의무도 따릅니다. 하느님께서도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창세 17,1),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창세 17,9)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 준수를 명하십니다. 하느님을 떠나지 말고 흠 없이 살 것. 이것이 하느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표지이자 사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위 죽음으로 이루어진 결정적인 계약(신약)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마음 읽기

스물 세 번이나 가출한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말했다. “야, 이놈아, 집을 나간 것이 벌써 몇 번째냐? 난 아들이 아니고 원수다, 원수.” 아버지는 랍비를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가출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랍비가 그 아이를 만났다. ‘당신이 날 어찌겠다는 거야?’라는 표정의 아이에게 반성의 기미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랍비는 잠시 생각에 젖다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애야, 너는 어떻게 스물세 번이나 집으로 돌아올 마음이 들었느냐.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 말에 아들이 신기하게 고개를 숙였고 그 뒤 가출하는 일이 없었다.



즐거운 불편5 : 오늘은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 스티븐 코비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 고백이 나오면 주님의 수난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메시아의 수난을 이토록 섬세하게 묘사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했던 이유는 본인 스스로 ‘마고르 미짜빔(사방에서 공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예레미야 뒤를 쫓아다니며 그를 놀려 대고 쓰러뜨리려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애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멸시, 비난, 야유, 소송, 천대 등은 훗날 메시아가 그대로 받아 내야 하는 것들이었기에, 그의 말과 행동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바빌론 포로 시대까지 살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서도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때도 로마의 속국 아래 포로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메시아는 예레미야가 박해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고 수난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그 시대는 메시아의 도래를 암시한 예표였습니다.

모두가 사장님

학교 선생님 중에 기술을 좋아해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딴 분이 있다. 그러다가 아예 정비 공장을 차렸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형편이 곤란해 야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이익이 나면 다 너희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은 너희들이야.”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성실하게 일을 참 잘했다. 아이들은 작은 가게이지만 그곳에서 경영 공부도 하고 이익 구조도 알아 간다. 그리고 나눔이란 게 무엇인지도 알아 간다. “너희가 사장이니깐 사장답게 일해라.” 이 한마디 말과 믿어 주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힘을 주었다.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다른 데로 가지 않았다. 선생님이 큰 회사에 취직 안 하냐고 물으면 “내가 사장인데 다른 데 왜 가요?”라고 한다. 그야말로 구멍가게였던 정비 공장은 점점 튼실한 기업이 되어 갔다. 송정림,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의 화살을 날려 주세요.

★ 사랑은 허리를 숙이고 상처와 눈물을 닦아 주는 것입니다. / 마더 테레사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이 시대를 ‘정보의 시대’라 합니다. 사회는 온갖 말들로 넘쳐 나고, 그만큼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말하는 전부가 다 진실일까요? 정보 사회에 넘치는 악성 댓글들은 사람을 찌르고 죽입니다. 집에서 쓰는 것도 부족해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험담과 화를 풀어냅니다.

예수님의 양부 요셉은, 성서에 여러 번 등장하고 하느님의 구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의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역할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즈카르야는 할 말 다하는데,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약혼자의 몸에 벌어진 엄청난 일을 알고서도,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베들레헴 출산 길에도, 이집트 피난길에도, 어린 소년 예수를 잃었을 때에도 그는 말이 없습니다. 말쑥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듯, 말쑥을 접하면 그는 차라리 돌이 됩니다. 말쑥에 누가 될까 봐 그러는 것일까요? 말 많고 시끄러운 이 시대에 가장 모범이 되는 성인은 요셉 성인입니다.

투명 인간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마태 1, 20). 요셉은 두려웠을까요?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오해를 뒤집어쓸 요셉을 마련하신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면, 요셉은 아무 말 없이 그 몫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은 수많은 요셉을 부르고 계시겠지요. 나자렛의 요셉이 두려워하면서도 성모님과 예수님을 감싸며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듯이, 지금도 아내와 어린 자녀를 감싸는 세상의 무수한 요셉들. 예수님은 그런 요셉의 족보를 통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안소근,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



오늘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 3초만 운동

-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화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결코 말하는 법이 없다. / 라 브뤼에르

하느님만이

하느님만이 신앙을 주실 수 있지만 나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희망을 주실 수 있지만 나는 그 희망을 형제자매들에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사랑을 주실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지만 나는 일치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힘을 주실 수 있지만 나는 실망한 이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길이시지만 나는 다른 이들을 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빛이시지만 나는 모두에게 그 빛이 비추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생명이시지만 나는 삶에 대한 갈망을 복돋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실 수 있지만 나는 가능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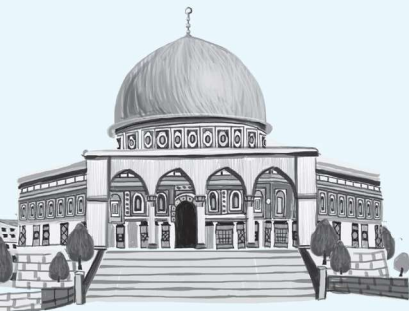
하느님은 어떤 것도, 모든 것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동참하고 내게 맡기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Come
and see



유다인의 가장 큰 축제 **해방절**



유다인의 축제는 역사적 사건과 일상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유다인의 여러 축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해방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다. 이제 개의 중요한 축제를 일생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는 것이 유다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습이었다. 그래서 이 축제들을 ‘순례 축제’라고 불렀다(신명기 16장 참조).

어떤 의미에서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화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유다인의 가장 큰 축제인 해방절은 유목민의 축제인 과월절과 농경민의 축제인 누룩 없는 빵의 축제, 곧 무교절에서 유래했다.

민족 해방을 기념하는 과월절

과월절은 원래 근동의 유목민들이 봄에 어린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 가축이 번성하기를 빌던 축제였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부터 가축 번성 외에 별다른 뜻 없이 지내던 축제였다. 그런데 봄에 새끼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던 유목민의 축제인 과월절이 이집트 탈출과 연관되었다(탈출기 12장 참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극적인 민족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로 변모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사마리안인들의 과월절



유대인의 과월절



과월절 풍경

를 하고 있을 때,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이집트 탈출 당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 놓은 집은 칼을 든 천사가 건너뛰어 죽음을 면하게 한 사건으로부터 과월절 또는 유월절이란 말이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과월절을 이집트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중요한 축제가 되었고,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해방을 염원하는 행사가 되었다. 따라서 과월절은 ‘이집트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에 다른 축제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누룩 없는 빵의 축제 무교절

무교절은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치던 농부들의 축제에서 유래했다. 해방절 축제 이후에 7일간의 누룩 없는 빵의 축제가 이어졌다. 이는 농경 사회의 축제로서 본래는 해방절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 두 축제가 이집트 탈출 사건과 연결되어 하나로 묶어지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무교병과 올리브

이다. 곧, 어린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던 날, 그들의 말자식들은 그 피로 구했던 새끼 양의 희생적 죽음에 연결되었다. 또한 누룩 없는 빵은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 시간이 없었던 촉박한 상황과 연결되었다.

보통 4월에 시작되는 누룩 없는 빵의 축제는 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 기간 동안 봄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안을 철저히 청소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집안을 청소할 때 누룩을 찾아 모조리 없애는 관습이 있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도망 나올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누룩 없는 빵을 찌 먹고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특별히 누룩을 철저히 찾아 없애는 전통이 생겨났고, 유대인들은 이를 오랜 세월 동안 지켜 오고 있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축제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내야 한다는 규정은 이스라엘 백

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예식을 치르라는 규정은 해방절 예식이 공동체의 구원 체험에 대한 기념이라는 것이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는 것은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현실의 어려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해방절은 하느님이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역사 한가운데서 자신들과 함께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더욱 굳세게 믿는 축제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를 향해 그분과 함께 단호하게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게 하는 민족 축제였다.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체험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의 자리로 역사적 체험, 그 느낌과 감동, 실제적인 결과 등을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순례 축제,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사도 2,1-4 참조). 때마침 오순절 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제자들 위에 내렸다. 이 성령 강림은 오순절 축제 날 이루어졌으며 이날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고대 농업 사회에는 추수한 첫 곡식을 신에게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 유대인들도 그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관습의 영향으로 추수 감사절을 지냈다. 유대인들은 과월절 첫날에서 일곱 주간이 지나고 추수절을 지냈다(신명 16,9-13

참조). 유대인들은 이 축제를 가나안 사람들처럼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밀 수확이 끝나는 날짜로 바꾸었다. 그래서 새 밀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빵 두 개를 봉헌하였다(레위 23,15-21 참조). 맥추절의 본래 의미인 만물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지킨 셈이다. 곡식의 첫 열매는 뒤에 거둘 수확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이처럼 처음에 오순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추수 감사절이었는데 후대에 과월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누룩 없는 빵의 축제’와 결합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곡식을 바치는 축제를 과월절 때 보릿단을



바치고 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내게 되었다. 오순절의 성격은 추수를 감사드리는 것이므로 일상의 식용으로 쓰는 누룩 있는 빵을 봉헌하며 추수의 감사를 의미했다.

오순절 예절(레위 23,15-22 참조)은 새로 구운 빵을 흔들어 바치고 성전에서 번제 제물, 속죄 제물, 감사 제물을 봉헌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사람들은 행렬하면서 성가를 부르고 시편을 노래했다. 끝으로 사제의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강복을 받았다. 흔드는 제물로 가져온 곡식 단은 곡식에 처음 낫을 댄 것으로 보관됐다(신명 16,9 참조). 이 곡식 단의 일부는 제단에 놓였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었다. 숫양은 번제물로 바쳐졌으며 곡식 단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은 무교절 축제의 일부분이기도 했다. 오순절 축제 때는 일상 노동을 금지했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나왔다(신명 16,16 참조). 이 축제는 가난한 자, 나그네, 레위인들이 초청돼 공동 식사를 함으로써 끝맺었다.

오순절은 70년 성전 파괴 이후 성전에 모일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이 이 축제를 지내면서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실만을 기념하였다.



출처: 허영엽, 『성서의 풍속』, 도서출판 이유, 2006

주님 수난 성지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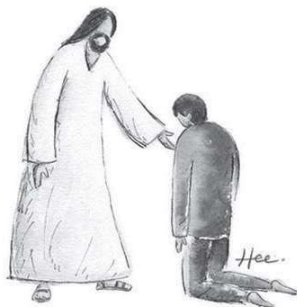


환영에서 배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이것을 ‘파스카’라고 하는데, ‘전화위복’과 맥이 통합니다. 파스카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뜻으로, 곧 수난 뒤에 부활이 온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라봄을 넘어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재현(anamnesis)될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주간의 파스카 예식이 나의 삶에 투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깊숙이 들어갑시다.

해마다 사순절에는 주님 수난기를 읽는데, 특이하게 역할극 형식으로 읽습니다. 철없을 때는 함께 외치는 소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단지 연극처럼 실감 나게 들리거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행위를 재현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으로, 헤로데의 행동으로, 군중들의 심성으로 성경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 나의 의혹이, 배반이, 죄가 현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난기 봉독에 진실하게 참여함으로써 치유와 구원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말할 때마다,
그것이 제 생애의 마지막 말인 듯이 하소서.
행동할 때마다,
그것이 제 생애의 마지막 행위인 듯이 행하게 하소서.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제가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봉헌인 듯이 감수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당신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인 듯이 몰입하게 하소서. 키아라 루빅



수난 복음을 천천히 읽고 쓰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찾으라. / 로올라의 성 이나시오



유다의 재물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와 공리주의에 기초합니다. 재물은 마땅히 쓰임새에 맞게 투자되어야 하고 합당한 이윤이 추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손에 들린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보는 순간 유다는 벌써 머릿속으로 주판알을 튕깁니다. 스승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길 그에게 삼백 데나리온은 정말 큰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땅바닥에 무참히 쏟아져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을 펼칩니다.

하늘나라의 셈법은 인간 세상과 다릅니다. 백 마리 양을 치는데 석양이 되어 세어 보니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유다의 셈법으로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가 양치기 스스로 길을 잃을 위험, 늑대를 만날 위험 때문에 한 마리 양을 포기할 것입니다. 꼭 찾아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다른 99마리마저 잃을지도 모르니 답은 뻔합니다. 자본주의 셈법이나 공리주의 사고방식을 지닌 자에게 목자의 희생과 사랑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위험한 길을 떠나십니다.

생각의 전환

만화가 플라우엔은 직장을 잃고 아내도 세상을 떠난 데다 집에 불이 나는 등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늘 세상을 원망하며 술집에서 살았다. 한번은 아들이 시험을 망친 걸 알게 되었다. 그는 기분이 잔뜩 상해 아들을 노려보곤 방으로 간 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고 일기를 쓰다 잠들었다. 다음날, 아들을 깨우러 가니 이미 등교한 뒤였다. 그런데 아들의 일기장이 보였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쳤다. “이번 시험은 잘 보지 못했다. 하지만 어젯밤 아버지는 날 혼내는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덕분에 나도 힘을 얻었다. 다음엔 열심히 해서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플라우엔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앞쪽을 넘겨보니 그저께 일기가 적혀 있었다. “툼 아저씨의 바이올린 켜는 솜씨가 갈수록 좋아진다. 기회가 되면 꼭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그는 문득 자신이 그저께 쓴 일기가 떠올랐다. “망할 놈의 톼, 또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켜다. 저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다니!” 그날 이후, 그의 일기에는 변화가 생겼다. “오늘도 일거리를 찾았다. 이런 식이라면 아마 내일이라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때문인지 그는 계속 만화를 그릴 수 있었고 유명한 만화가가 되었다. 김진이, 월간 <좋은생각>



마음으로 불편한 이웃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주모경 한 번 바칩니다.

★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도스토옙스키



오늘 복음에서는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스승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짝트고 있습니다. 유다는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마태 26,25) 합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곧 스승을 배반할 거면서, 자신을 속이며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요한 13,37)라고 말하지만, 그는 내적으로 이미 스승의 메시아관과 죽음에 대해 실망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결국 스승을 배반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파멸로, 하나는 회개의 길로 걸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길로 향하게 된 이유는 자아 수용 여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해 성사를 대하는 신자들의 마음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항상 같은 죄를 고백하는 자신에 대한 거부는 오히려 성사를 멀리하게 합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자신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완벽주의자나 자기혐오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망으로 자신을 몰고 가거나 냉담에 빠집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아를 수용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와,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발과 오른발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많이 보고 듣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들은 역경을 ‘이겨 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역경을 ‘이겨 내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 어느 날,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해탈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절망 속에 빠져 있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날부터 절망스러운 상황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상황은 어제와 똑같다. 내일도, 모레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절망과 희망은 들숨과 날숨 같은 것이다. 숨을 들이쉬었으면 그다음에는 내쉬는 게 이치가 아닌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제 희망의 보일 차례다. 김창완, 『네가 있어 다행이야』



길을 걸으며, 장애를 가진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인도인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고개를 숙여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건넨다. 이 말은 ‘제가 그대 안에서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서 신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그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는 그들 안에 내재한 선(善)의 불씨가 타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서는 파스카 예식을 거행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Passover’라는 라틴어는 ‘넘어간다, 건너간다, 뛰어넘다’는 뜻이고 중국어로는 유월(逾越)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의 땅인 이집트에서 벗어나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파스카를 최후 만찬에서 시작하셨고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새롭게 완성시키셨습니다.

파스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고, 실체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십자가만을 의미하는 것도,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고통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또 실망에서 희망으로, 타락에서 회개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분열에서 일치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상처에서 치유로, 죄지음에서 죄 사함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영광이 없는 십자가는 얼마나 허무한지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사기극이고, 부활이 없는 죽음은 공허함입니다. 상처 없는 치유, 치유가 안 되는 상처, 이 모두가 성립 불가입니다. 타볼산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영광을 맞보고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려가면 주님께서 죽임당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스카는 가로질러 갈 수도, 축소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을 길들인 캄캄바

아프리카 남동쪽, 가난과 병, 굶주림과 어둠이 가득 찬 땅에 한 소년이 있었다. 단돈 80달러가 없어 학교를 그만뒀다 했지만 소년은 공부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오랜 가난에 시달리던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소년이 사는 나라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는 2%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황된 소리라고 여겼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소년은 곳곳이 계획을 실행했다. 쓰레기장까지 뒤져 녹슨 자전거, 고장 난 송풍 팬, 바퀴와 체인 등으로 마침내 커다란 풍차를 만들어 냈다. 풍차는 마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마을에 전기가 공급되자 사람들은 밤에도 밝은 빛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펌프를 통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었다. 2007년 지구촌의 미래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TED 회의장 연단에 스무 살이 된 소년, 캄캄바가 올라갔다. 유명 인사가 무수히 올랐던 바로 그 연단에서, 캄캄바는 긴장된 얼굴과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다. “난 그저 노력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박수와 환호로 뒤덮였다.

브라이언 밀러,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오늘 커피 한 잔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봉헌합니다.

* 1,000원이면, 아프리카 친구 10명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장미가 아니라 함께 핀 ‘안개꽃’입니다. / 신영복



주님 만찬 성목요일



한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다면 그 심정은 어떠할까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말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참석하는 우리는 하나의 예식을 넘어 그 절박한 심정까지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의 중요성과 비중을 다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나누어 주시며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바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유언을 받들고 유언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생을 마감한다는 점에서 마지막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사제직이 성체 성사 안에서 시작되는 첫 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늘 미사 전에 중앙 감실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미사의 첫 시작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 담긴 사랑의 신비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랑을 건네다

추석 때였다. 명절이라 밀려드는 손님을 맞으며 정신없이 일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할머니는 입구에 서서 큰 목소리로 그 말만 되풀이했다. 당황한 나는 우선 할머니를 부축해 앉힌 뒤 물 한 잔을 건넸다. 하지만 그다음에 뭘 하면 좋을지 난감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할머니를 살필 때, 내 또래의 남학생 두 명이 밥을 먹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려는 건가?’ 싶어 걱정됐다. 그런데 그들은 할머니 앞에 메뉴판을 펼치고 음식을 골라 주는 게 아닌가. 그러곤 내게 말했다. “이 음식으로 갓다 주세요. 혹시 다른 음식을 더 드시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주시고요. 계산은 저희가 할게요.” 그들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아 빨리 나서지 못했으며, 할머니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안심이 되는지 가게를 나갔다. 조현주, 월간 <좋은생각> 274호



인터넷 접속 전에 바치는 기도

저희를 주님의 모상으로 빚으시고, 예수님의 신성 안에서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만을 구하라고 명하신 하느님, 인터넷을 하는 동안 저희의 손과 눈이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영혼을 사랑과 인내로 대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성주간 전례에 참석합니다.

상한
한 가지

★ 최상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은 바로 당신 손끝이다. / 스웨덴 속담



성금요일은 시공이 정지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절대 침묵하시는 날로서 인간은 하느님의 부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1년 중 미사가 없는 단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인간과 하느님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가 무서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출타가 길어지면서 아버지의 부재가 그리움, 소중함과 같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성숙한 것입니다. 부모의 부재, 부부의 부재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 가족은 함께한다는 의미인 것이 더욱 드러납니다.

미사가 없는 날인 성금요일은 인간이 하느님의 죽음, 침묵, 부재를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존재와 구원의 가치를 더 확신하게 합니다. 사제들에게는 단 하루 임무 정지가 되는 날로서, 미사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깨닫게 합니다.

브랜든의 샌드위치

2주의 시간만 남은 11살짜리 백혈병 환자 브랜든 포스터.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 보렴.”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한 마디. 브랜든은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노숙자들의 캠프를 보았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 급하게 식재료를 싣고 달려온 대형 마트의 트럭. 하던 일도 미루고 달려온 주민들.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기부금. 그렇게 만들어진 샌드위치 봉지에 적힌 한 마디 문장 “I love brendan.”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전해져, 2주 동안 3,500여 명의 노숙자들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았다.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브랜든은 무척 행복해하며 말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브랜든은 다음날 엄마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세계가 만약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그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 상태, 먹을 양식도 집도 없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은 17명이라고 합니다. 단식하여 절약한 식사비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헌합니다.



부활을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 우리 모두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단식, 금육, 십자가의 길, 희생 봉사 등을 통해, 부활이 기쁨으로 환원되기를 바라며 지난 40일을 지냈습니다. 드디어 장엄한 부활 대축일 미사가 끝나고 ‘부활을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교회의 정점이자 완성’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축하의 말은 대상을 두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활절의 정확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부활을 위한 예표이자 모범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천 년 전 예수님 육신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부활(거듭남)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참된 신앙 자세입니다. 죽음을 물리친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에 무게를 더 많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우리들 서로에게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부활을 향한 삶이어야 합니다.

내 무덤

죽음이라는 수수께끼를 그토록 풀고 싶어 하면서도 왜 우리는 주님의 빈 무덤을 믿지 못하는지 곰곰 생각해 본다. 내가 만들어 놓은 무덤에서 나오고 싶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양식 없이 찢절매고 있는 가난한 이를 보면서도 열지 않는 자신의 쌀통이 무덤이고, 수술비가 모자라 찢절매는 이들을 못 본 체하는 이의 예금 통장도 무덤이다.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무덤, 동료마저도 경쟁자로 보면서 살아가는 직장이라는 무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각자가 만들어 놓은 무덤을 열어젖히고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수일 신부, <월간 리더>



사랑이 담긴 부활 카드로, 쉬고 있는 가족을 부활 미사에 초대하세요.

★ 교회는 성인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 모튼 켈시

예수 부활 대축일



부활 아침, 마리아 막달레나를 따라가 봅시다. 사흘의 기다림, 이른 새벽 무덤으로 감, 무서움, 시체가 사라진 놀라움, 서러움에 울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 이 모두가 극적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요한 20,17)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추억 놀이나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 붙잡으려 했던 것은 그리움, 다시 잃고 싶지 않음, 과거에의 집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실재,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를 떠나보내면 더 깊은 실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니 너도 이제부터 옛날의 내가 아니어야 한다. 나는 부활하였고, 부활한 나를 새롭게 인식해야 너도 부활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념입니다. 부활 신앙은 과거로부터의 탈출이자, 하느님에 대한 현존 체험입니다.

지금 사랑하라



무릇 죄수들이란 풀려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나는 체포될 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풀려나기를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 보리라.’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포함해 죄수 1,500명을 배에 태워 데려갈 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여기가 나의 성전이다. 여기에 하느님이 내게 돌보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나의 사명이 있다. 나의 사명은 절망과 비참함에 빠진 형제들에게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확실히 알려 주는 일이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나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에 새로운 평화가 가득 차올랐고, 그 평화는 13년간 내 곁에 머물렀습니다. 반투안 추기경,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알렐루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첫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맛들이는 것이다. / 토머스 그린



2016 사순 시기 묵상집

돌아섬

발행일 • 2016년 1월 4일

발행인 • 변승식 신부

편 집 • 서순원 수녀, 문혜영, 박소라

발행처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 소 •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동)

전 화 • 02)2268-7103

팩 스 • 02)2268-7104

E-mail • pmsk@pmsk.net

홈페이지 • www.pmsk.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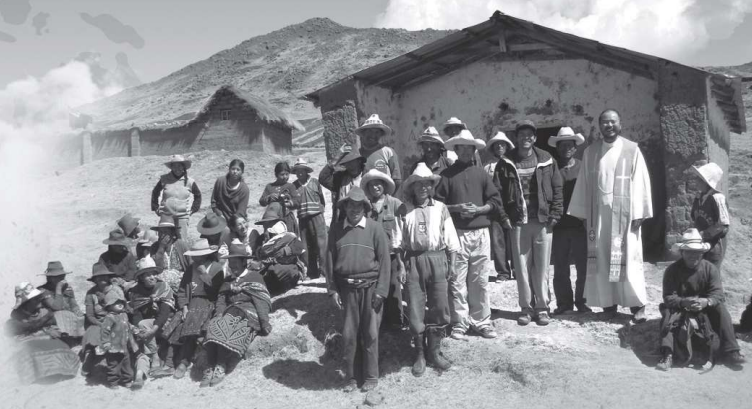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msk1004

디자인 • (주)더셀 02)2264-9293

교황청전교기구는 교황청인류복음화성 소속으로,
전교지역 신생교회들의 사목활동과 사제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후원은 또다른 선교입니다



후원 문의 ☎ 02) 2268-7103 미사예물 문의 ☎ 02) 460-7609

후원가입과 미사예물 접수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하세요!

교황청전교기구



검색하세요. www.pmsk.net



나 항상 당신을 찬미하리라
사랑밖에 모르는 주님!

